

협회는 창설 이래 EPS에 대한 올바른 이해 보급의 일환으로 해외의 여러 단체들과의 적극적인 교류 및 협조를 통하여 꾸준히 해외의 최신 정보와 자료를 수집 배포하여 왔다. 협회는 이러한 국제협력을 앞으로도 더욱 강화 해 나갈 것이다.
이번 호부터 협회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해외의 단체나 인물의 활동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2010년까지 EPS 재활용 75% 달성 목표

JEPSRA는 일본의 EPS재활용협회(Japan Expanded Polystyrene Recycling Association)의 약자이다. 1991년 5월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설립 된 EPS재활용 기구이다. 총무, 국제, 재활용추진, 연구 및 기술, 홍보부 등 5개 부서에 7명이 근무하고 있는 JEPSRA는 현재 아시아EPS생산자기구(AMEPS)의 회장을 맡고 있으며 전 세계 EPS재활용을 비롯한 EPS업계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JEPSRA의 스즈무라 슈타로(鈴木 洲太郎) 전무를 이메일 인터뷰했다.

Q. JEPSRA의 설립 동기는?

Why the EPS industry of Japan established JEPSRA?

A 17 ~ 18년 전 몇몇 전기전자업체들의 EPS 완충포장을 종이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Because some 3 or 4 E&E OEM manufacturers intended to substitute paper for EPS of protect packaging application at that time 17 ~ 18 years ago.

Q. 현재 회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Who are the members of JEPSRA?

A 5개의 원료업체와 141개의 가공사(일본스티로폼공업협회)가 회원이다. It consists of 5 EPS beads manufacturers & 141 Processors(The Japan Foam Styrene Industry Association) as of May 2006.

Q. 회비는?

How do your members give their fee? (Beads makers & Processors pay their fees at the same rate?)

A 원료업체와 가공사(단체)가 같은 비율(1엔/kg)로 내고 있다.

Both EPS Beads Makers and EPS Processor Association pay the members fee at the same rate (1 Yen / Kg).

Q. 일본의 EPS 재활용 체계는?

Please introduce the EPS recycling system in Japan.

A 각 가정에서 분리배출 된 폐EPS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거하여 재활용사업자에게 보내진다. 기타 슈퍼마켓, 도매시장, 전기전자회사 등 사업장에서 배출 된 폐EPS는 배출처 자체 재활용설비나 자원재활용업체에 의해 재활용된다. 특히 JEPSRA에서 운영하는 EPSY Plaza라는 회수 거점이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어 EPS의 재활용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

The waste EPS from households sorted by consumers are collected by local governments and sent to recycling businesses. EPS waste generated by business points like supermarket, wholesale markets and E & E stores, etc., are treated by their own recycling facilities or

resource recyclers. Especially there are many EPSY Plaza which is run by JEPSRA to collect & recycle waste EPS all over the Japan to make it easier to recycle EPS.

Q. 협회 설립 후 주요한 성과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What are the main result of JEPSRA's effort for EPS recycling in Japan after your foundation?

A JEPSRA의 설립 목표는 EPS에 재활용 활성화, EPS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증진, 재활용EPS의 용도 개발, 그리고 해외단체와의 협조 등이다. JEPSRA의 이러한 목표가 일본 전역에서 활성화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JEPSRA's principle and objections are as below.
- Promotion of recycling of EPS.
- Dissemination of correct understanding of EPS.
- Development of applications for recycled EPS.
- Collaboration with overseas organization.

I believe above principle and objection of JEPSRA has been promoted in Japan.

Q. 일본의 EPS재활용율은?

What is EPS recycling rate of Japan?

A 2005년도 재활용율은 71.1%이다. 물질 및 화학적 재활용이 42%, 열회수 재활용이 29.1%이다.

The recycling rate was 71.1% in 2005. Material(Mechanical & Chemical) recycling 42%, Thermal recycling(Energy recovery) was 29.1%.

Q. 열회수도 주요 재활용 수단으로 등장했는데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JEPSRA reports also energy recovery figure with material recycling in EPS recycling rate. Then please give an example (case) of the energy recovery in reality.

A 실생활에서 열회수의 예는 고휘 연료로 친환경발전소나 헬스장의 온탕을 위한 에너지로 사용되는 것이다. RPF(Refused Paper and Plastics Fuel) like RDF(Refused Derived Fuel) utilized Energy for Eco Power Stations and hot spring at Health Centers.

Q. 앞으로 JEPSRA의 가장 중요한 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What do you think which one is the best important business of JEPSRA in the future?

A 첫째는 건축물에 EPS 재활용시스템을 보급함으로써 EPS 단열재 용도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둘째는 2010년까지 EPS재활용 목표 75% 달성을 포함하여 자발적 재활용 계획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First promotion for increasing the EPS insulation application by providing a EPS recycling system of building construction. Second promotion of voluntary recycling plan including achievement of EPS recycling target 75% in 2010.

Q. 오리를 마스코트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또 마스코트의 이름이 있는가?

Why do you adopt a duck as a mascot of JEPSRA? Does he has a nick name?

A 마스코트의 이름은 'EPSY Boy'이다. JEPSRA는 어린 오리처럼 EPS재활용활동을 시작했으며 어린 오리의 걸음 걸이처럼 시행착오를 겪었다. 또 다른 이유는 어린 오리가 사랑스럽고, 이 EPSY boy처럼 EPS제품이 사람들에게 사랑받기를 기대한 것이다.

His name is EPSY boy. JEPSRA started the EPS recycling activities such as child duck, trial and error like child duck walk. Another reason of child duck may be lovely, and EPS products like the EPSY boy mascot was expected to be loved by people.

- 설명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your kind explanation.



스즈무라 전무는 1968년 「미쓰비시 석유화학」에 입사했다. 이후 「미쓰비시석유화학」과 「미쓰비시 화학산업」이 합병 된 「미쓰비시화학」에서 EPS, EPP등 발포플라스틱을 담당했다. 「미쓰비시 발포플라스틱」에서 전무로 근무한 후 2001년부터 JEPSRA에서 전무로 재직 중이다.

Mr. Susumura worked for Mitsubishi Petrochemical from 1968 and was in charge of polyolefin plastics and almost of chemicals including Styrene Monomer. During this period he had many connections with Korean Industries. After merged with Mitsubishi Chemical Industry, he worked for Mitsubishi Chemical Co. He was in charge of foamed plastics including EPS and EPP. After senior managing directors of Mitsubishi Foamplastics Co., he transferred to JEPSRA in 2001.